

## 광주형 복합쇼핑몰 관건은 결국 '돈'

강 시장, '메타 N컴플렉스' 제시  
수익·공익 공존 국가지원 방점  
트램·연결 도로 구축 등 6천억  
디지털 물류체계 3천억 지원 요청  
민간주도 지향 국민의힘 '선긋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광주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의 모델이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Meta N-complex)'로 제시됐다. ▶관련기사 3면  
'메타 N컴플렉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역 복합공간을 의미하지만, 민간자본 유치에 더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강기정 광주시장의 밀그림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2022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 건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서 강 시장은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

회에서 광주시가 생각하는 복합쇼핑몰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청사진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광주시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을 담당으로 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모형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광주시가 제안한 복합쇼핑몰 모델 '메타 N컴플렉스'는 ▲세대·분야·시간·공간 연결(Necto) ▲전에 없이 그 너머의 오직 저기에만 존재(Next&New) ▲쇼핑과 즐거움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길목(Neck) 등 3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민간 수익성과 공익성의 공존을 위한 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지원형 모델로, 강 시장은 이를 위한 사업비 9,0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 고객과 시민 편의를 위한 연결수단, 즉 트램(도시철도)과 주변 연결 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소상공인·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기반 물류체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높은 온라인 거래 성장세, 쇼핑몰의 대형화·문화공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지원·민간자본·지자체의 신속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라며 "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전에 없던 복합쇼핑몰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이 속고 끝에 국가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쇼핑몰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유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 계획안에 대해 '민간주도형'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이 곤장 선을 긋고 나선 점은 대

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광주시가 새로운 구상을 내놨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정부도 여타와 검토를 마치지 않아 오늘은 청취하는 것으로 그쳤다"며 "전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형태의 계획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

고, 여타도 거치지 않았다. 검토에 장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트램 건설에 대해서도 "복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조건을 내걸어야 하겠지만, 기반시설 등은 국비 지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그린카·뿌리산업·로봇' 3대 전시회 21일부터 사흘간 DJ센터서 열린다

미래 디지털산업을 선도할 자동차·뿌리산업·로봇을 테마로 하는 3개의 전시회가 광주에서 동시에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사흘간의 전시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국제그린카전시회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는 스마트라이프 산업을 선도하는

제품들, 국제뿌리산업전시회는 제조업에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기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와 쌍용차를 비롯해 이엔플러스, DKSH, 오택캐리어 등 국내·외 280개 업체가 참가, 450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해외 13개국에서 53명의 바이어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각각의 라이프스타일과 콘셉트에 맞는 제품과 콘텐츠로 테마부스를 꾸려 다양하고 특색있는 최첨단 가전로봇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차는 3만대 이상 예약을 자랑하는 신차 토레스를 공개, 참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엔플러스는 국내 최초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 시스템(ECAS) 적용차량인 EV 카고트럭을 전시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최초, EV 1톤 축연장 시리즈도 선보인다.  
공군군수사령부는 항공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내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을 선보일 예정이며, 목포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는 오축 부품과 3D소재와 함께 부스내에서 AR·VR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실감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13개 기관들이 다양한 신기술과 사업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 광주·전남 물폭탄 침수·항공편 결항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대 71.1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고흥 134mm를 최고로, 진도 126.5mm, 영암 120mm, 신안 119.5mm, 여수 116.8mm, 보성 111.5mm, 해남 102.9mm, 광주 48.7mm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새벽 진도에는 시간당 71.1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거센 비에 항공편 결항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에서는 사거리 도로가

침수돼 오전 9시 44분께부터 도로가 통제 중이다. 보성, 목포, 순천, 화순 등에서도 오전 3시 45분께부터 일부 도로 침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또 오전 8시 2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여수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 8733편과 오전 9시 50분께 여수에서 김포로 향 하려던 OZ8734편이 결항했고, 광주와 여수공항의 일부 항공편 운항도 지연됐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19일 새벽까지 30~10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민 기자

**INSIDE NEWS**

- ▶ 전남대병원 현대화 예타 추진 ▶ 3면
- ▶ 봉선동 학원가 픽업차량 몰살 ▶ 7면
- ▶ 기획/박홍률 목포시장 ▶ 11면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